

새로운 ★ 찾아라... 방송사 오디션 프로그램 몰려온다

SBS, 박진영·싸이 앞세운 '라우드' 론칭

MBC·엠넷도 글로벌 아이돌 프로젝트

KBS, 7090 노래 재해석 '새가수' 발굴

지상파를 필두로 방송사들이 잇따라 새로운 오디션 프로그램을 내놓으면서 하반기에 이른바 '오디션 대첩'이 이뤄질 전망이다. 우선 글로벌 아이돌 그룹 선발을 목표로 한 오디션들이 다시 안방극장을 찾는다. TV조선 '미스트롯'·'미스터롯'을 시작으로 트로트 열풍이 일어나면서 한동안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안방극장을 점령했지만, 글로벌 팬덤을 목표로 아이돌 오디션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SBS가 그 첫 주자로 나선다. SBS는 박진영과 싸이를 내세운 보이그룹 프로젝트 'LOUD: 라우드'를 오는 6월5일 첫 방송 한다. '라우드'는 JYP엔터테인먼트의 박진영과 피네이션(P NATION)의 수장 싸이가 각 회사를 대표할 차세대 보이그룹 두 팀을 탄생시키는 프로젝트다. 특히 SBS 대표 오디션 프로그램이었던 '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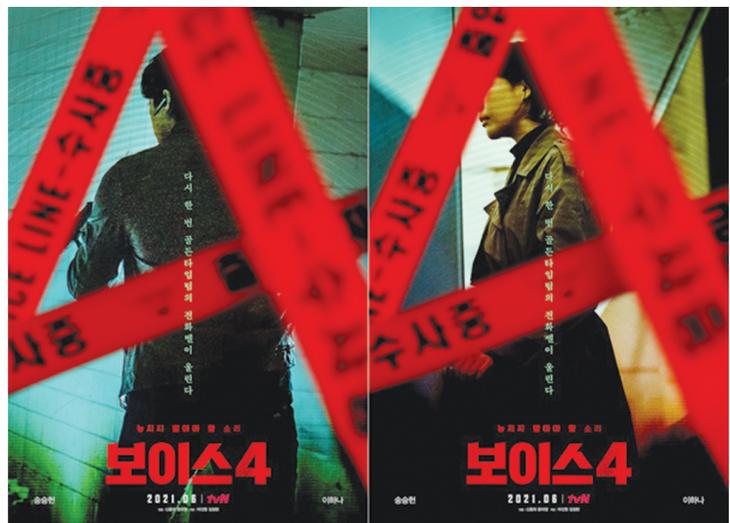
팝스타' 제작진과 의기투합해 주목된다. 지난 2011년 12월 첫 방송 후 6년여간 시즌6까지 이어지며 많은 스타를 배출하고 화제가 된 'K팝스타'의 흥행을 다시 노린다. '라우드'는 토요일 밤 프리타임 시간에 편성됐다. '라우드'는 기존 오디션에서 주목했던 춤, 노래뿐만 아니라 작사, 작곡, 악기, 편곡, 미술, 무용 등 다방면에 예술적 재능을 지닌 참가자를 발굴한다는 목표다. 최종 멤버로 선정되면, 올 하반기 데뷔해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한다는 계획이다. MBC는 스타 PD들과 손잡고 오디션 프로그램 제작에 나선다. MBC에서 과거 '강호동의 전생연분', '황금어장-무릎팍도사' 등을 성공시켰던 여운혁 PD가 이끄는 미스틱스토리과 함께 보이그룹 오디션 프로그램을 제작한다. 기존 오디션과 차별화된 새로운 포맷의 프로젝트를 예고하며, 하반기에 방송할 예정이다.



또 엠넷에서 '쇼미더머니'·'언프리티랩스타'·'프로듀스 101' 등 인기 오디션 프로그램을 탄생시킨 한동철 PD와는 글로벌 걸그룹 육성 프로젝트에 나선다. 국내의 지원자 모집이 시작되면서 한국을 비롯한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및 남미 등 세계 각국의 지원자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후문이다. 프로그램은 오는 11월에 방영 예정이다. 그동안 다양한 오디션 프로그램을 선보여온 엠넷도 새로운 글로벌 프로젝트를 예고했다. 엠넷은 글로벌 무대 활동을 목표로 하는 걸그룹 데뷔를 위해 한국, 중국, 일본의 아이돌 지망생들이 새로운 도전을 펼치는 '걸스 플래닛 999(Girls Planet 999)'를 선보인다. 하반기 방송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걸스 플래



닛'은 언어도 문화도 다르지만 아이돌 그룹 데뷔라는 같은 꿈을 가지고 있는 한국, 중국, 일본의 참가자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2월부터까지 지원자를 모집했다. 엠넷은 대표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로 큰 인기를 누렸지만, 조작 논란으로 신뢰에 타격을 입기도 했다. 해당 제작진은 투표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확정됐다. 엠넷의 또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제작진도 현재 재판 중이다. 이 가운데 엠넷이 다시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을 내놓으면서 공정성 문제 등 신뢰 회복에 어떻게 나설지도 관심을 받는다. KBS는 오는 7월 새로운 오디션 프로그램 '우리가 사랑한 그 노래, 새가수'로 시청자들을 찾아간다. '새가수'는 레전드 노래들을 새롭게 노래할 '새가수'를 발굴하는 프로젝트다.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의 노래들을 현대 감성으로 재해석해 부르는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이다. 나이, 성별, 국적 제한 없이 70~90년대 노래를 사랑하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새가수'를 발굴하는 것뿐만 아니라, 70~90년대 명곡을 부른 원곡자와의 만남과 노래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담으며 대한민국 대중가요의 역사를 되짚어본다는 취지다. 7080 대표 가수 배철수를 비롯해 가수 이승철, 거미, '마마무' 솔라 등이 심사위원으로 합류해 주목받고 있다. 제작진도 "톱 보컬리스트들이 심사위원에 합류하게 돼 가수 발굴에 청신호를 켜다. 올해 하반기를 뜨겁게 달굴 '새가수'의 탄생을 기대해 달라"고 밝혔다.



송승헌·이하나 '보이스4', tvN에서 만난다

'보이스4: 심판의 시간', 오는 6월 첫 방송

'보이스4'가 오는 6월 tvN을 통해 시청자와 만난다. 14일 tvN에 따르면 '보이스4: 심판의 시간'은 오는 6월 첫 방송 된다. 시즌1, 2, 3에 이어 4연속 히트를 정조준하며 레전드의 귀환을 알린다. '보이스4'는 범죄 현장의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112 신고센터 대원들의 치열한 기록을 그린 소리 추적 스릴러다. 2019년 OCN에서 방영된 시즌3는 청력에 위기가 찾아온 '강권주'(이하나)와 약한 본능이 깨어난 형사 '도강우'(이진욱)를 소재로 최종회 시청률 평균 5.5%, 최고 6.3%를 기록했다. (닐슨코리아 전국 가구 기준) 시즌4에서는 초정력으로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살인마가 등장하면서, 자신과 같은 능력을 가진 범죄자로 인해 공지에 몰린 보이스 프로파일러와 타협을 불허하는 원적주의 형사의 새로운 골든타임 공조를 박진감 있게 그려낸다. '보이스' 시리즈를 탄생시킨 마진원 작가가

집필을, '터널'·'크로스'를 통해 졸жит한 스타일을 선사했던 신용휘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송승헌은 죽음의 현장에서 생명을 살리는 원적주의 형사 '데릭 조'로 새롭게 합류했고, 이하나는 생명의 소리를 듣는 보이스 프로파일러 '강권주' 역을 맡아 더욱 탄탄하고 강력해진 골든타임팀을 예고한다. 이날 공개된 티저 포스터는 송승헌, 이하나가 폴리스라인(Police Line, 경찰통제선) 너머 사건 현장 검증에 나선 모습이다. 송승헌은 누군가를 향해 총구를 겨누는 모습으로, 이하나는 범인을 잡기 위해 소리에 집중하는 모습으로 이목을 집중시키며 이들이 새롭게 추격할 사건은 무엇일지 궁금증을 유발한다. 제작진은 "티저 포스터로 시즌4의 시작을 알린 '보이스4'에서는 긴박한 상황 속 골든타임을 사수하기 위한 송승헌, 이하나의 새로운 호흡과 활약이 극의 몰입과 흥미를 높일 것이다. 첫 방송까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에이비식스, 24일 유니버스 뮤직 신곡 '제미나이' 발매

오는 24일 오후 6시 발매

그룹 '에이비식스(AB6IX)'가 유니버스 뮤직 신곡 발매를 확정했다. 엔씨소프트, 클럽(Klap) 측은 15일 "유니버스 뮤직에서 선보이는 에이비식스의 신곡 '제미나이(GEMINI)'가 오는 24일 오후 6시 발매 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유니버스 앱과 공식 SNS를 통해 스케줄러와 커버 이미지를 공개했다. 공개된 스케줄러에 따르면 오는 16일 에이비식스 멤버(전웅, 김동현, 박우진, 이대휘)들의 콘셉트 포토 공개를 시작으로 17일 트레이LER 영상을 공개한다. 19일에는 뮤직비디오의 첫 번째 티저 여행(Journey) 버전과 21일 별빛(Starlight) 버전의

티저 영상을 순차 공개해 신곡에 대한 기대감을 이어갈 전망이다. 특히 베일을 벗은 '제미나이' 커버 이미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공개된 이미지 속에 에이비식스 멤버들은 몽환적이고 신비로운 붉은 조명 아래 남다른 콘셉트 의상들로 시선을 사로잡는다. 에이비식스는 지난 2019년 데뷔해 작사, 작곡, 프로듀싱까지 가능한 '만능돌'로 글로벌 팬들에게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네 번째 EP '모(MO)' 컴플리트 : 해브 어 드림(COMPLETE : HAVE A DREAM)을 발매했다. 유니버스 뮤직은 지난 1월 IZ*ONE(아이즈원) 'D-D-댄스(DANCE)', 2월 주수미·비·수호신(Guardians), 3월 박지훈 '콜 유 업(Call U Up)(Feat. 이하이)(Prod. Primary)', 4월 (여



자)아이들 '라스트 댄스(Last Dance)(Prod. GroovyRoom)', 5월 강다니엘 '이우터스페이스(Uterspace)(Feat. 로꼬)'를 발매했다.

광주독립영화관 5·18 41주기 특별전...11편 상영

내일까지 황무지 5월의 고해·단편영화 상영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영화로 조명하는 영화들이 광주독립영화관에서 잇따라 상영된다. 광주독립영화관은 17일과 18일 이틀동안 5·18 41주기 영화 특별전을 선보인다고 16일 밝혔다. 특별전은 5·18을 조명할 영화 김태영 감독의 '황무지 5월의 고해'를 비롯해 10편의 단편영화가 소개된다. 영화 '황무지 5월의 고해'는 1987년에 제작된 단편 영화 '칸트씨의 발표회'와 1988년작 장편 '황무지', 지난해 5월에 추가로 촬영된 비하인드 이야기를 모아 지난해 10월에 장편으로 개봉한 작품이다. 양주연 감독의 '40'은 5·18의 기억을 가지고 영화에 출연했던 네 명의 인물들을 그 시절의 장소에서 비슷한 표정으로 사진을 찍으며 그

날의 기억을 담아낸 작품이다. 남해인 감독의 '스무살'은 스물을 넘은 인물들을 인터뷰하며 그들의 시간을 기록했으며 김재한 감독의 '짜! 짜! 짜! 짜! 탕'은 역사로 인해 엇갈린 운명의 세 남자의 끝까지 않은 이야기를 뮤지컬 형식으로 그려낸 극영화이다. 이 밖에도 과거로 가고 싶어하는 할아버지와 아이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김고은 감독의 '방 안의 코끼리', 트라우마를 간직한 자신의 고백을 담은 박은선 감독의 '순, 기억, 모자이크', 재일 한국인 박영이 감독의 시선으로 담은 '우리가 살던 오월은' 등이 관객을 만난다. 광주독립영화관 관계자는 "이번 특별전은 5·18의 역사적 의미를 영화를 통해 조명하고 현재의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박명수 "아내의 맛" 조작 몰랐다

개그맨 박명수가 '아내의 맛' 조작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명수는 14일 유튜브 채널 '할명수'에 '50만 기원 Q&A 무엇이든 물어보십시오'와 용을 공개했다. '아내의 맛'이 조작인지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을 받은 그는 "솔직하게 얘기해요?"라고 하더니 "굉장히 민감한 질문이긴 하지만 촬영을 나가면 전 최선을 다하는 거지, 누가 와서 얘기를 안 해주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나. 나중에 그런 일이 터졌을

때 '그런 점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더니 "잘못된 게 있다면 정중히 사과하고 좀 더 앞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저는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한편 박명수는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에 대해 "젊은 층과의 소통을 위해 시작했다. 제가 TV에 나오는 사람이지만 TV보다는 유튜브를 더 많이 보게 되는 게 현실"이라고 답했다.



김다미의 '혼자만의 시간'...시네마틱 무비 '잠적' 론칭

홀로 떠나는 여행 담아낸 비주얼 콘텐츠 리얼리티 프로그램

배우 김다미가 3일간 잠적해 혼자만의 시간을 보낸다. 디스커버리채널 코리아와 SKY채널은 김다미의 시네마틱 로드무비 '잠적'을 이달 공개한다고 14일 밝혔다. '잠적'은 세간의 시선에서 벗어나 단 한 대의 자동차만으로 홀로 떠나는 여행을 담아낸 새로운 형태의 비주얼 콘텐츠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다. 대본은 물론 어떠한 설정도 없이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도로 위 자유로운 여행을 담아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첫 방송은 20대를 대표하는 차세대 배우 김다미를 통해 '나 홀로 여행'의 로망을 그려낼 예정이다.

공개된 티저 영상 5종에는 푸른 숲이 울창한 냇가,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언덕, 호젓한 저수지 등 다양한 공간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김다미의 순간들이 담겼다. 서정적인 자연과 김다미의 편안한 내레이션이 돋보인다. '잠적'은 스튜디오 디스커버리의 6번째 오리진 프로젝트로, '탐기어 코리아'를 시즌1부터 담당했던 서승한 PD가 메가폰을 잡았다. 제작진 측은 "많은 이들이 꿈꾸는 혼자만의 자유로운 여정을 담아낸 '잠적'을 통해 일상에서 지친 이들 누구나 편안하고 자유로운 힐링의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잠적'은 오는 27일 오후 8시40분 처음 방송된다.